

1929년 조선박람회 출품주택 개척경위 및 평면 고찰

The Research on the Process and Floor Plan of Model Houses for The Chosun Exhibition in 1929

서귀숙*

Suh, Kuee-Sook

Abstract

The Chosun Exhibition was held in 1929 and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AAC) displayed model houses for the fair. These model houses represented the new housing trend of the Chosun society, so this research was necessary to find out the facts. The main materials used for this research were issues from 'Chosun and Architecture'.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activity of the AAC and to classify the displayed model houses according to the structure, plan and interior. These three model houses depicted the improved housing designs at that time. Improved housing designs also depicted the convenience of everyday life, hygiene,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the application of modern life to that era. Therefore, these three houses would be reevaluated as new models of houses for the Chosun society under education activity by the AAC.

Keywords : Chosun Exhibition, Model Houses, 『Chosun and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Association of Chosun
주요어 : 조선박람회, 출품주택, 『朝鮮と建築』, 조선건축회

1. 서론

1929년 일제강점기 한반도에는 조선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조선박람회는 조선총독부의 시정(施政) 20년을 기념하기 위한¹⁾ 목적으로 개최되고, 여기에 조선건축회는 실물의 주택²⁾을 출품하였다. 실물주택이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으로 입주 전에 미리 주택을 보여주는 현재의 견본주택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20년대 문화운동의 맥락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화계몽은 주택의 생활방식과 인식이 변모하는 주택개발로 발전했으며³⁾, 문화주택의 등장⁴⁾, 주거생활의 개선을 주장하고 신생활운동을 제시하는 의식개선의 사회운동⁵⁾ 등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조선박람회에 출품된 주택전시는 당시 이러한 조선의 새로운 주택동향을 나타내거나 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은 조선건축회와 관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건축회가 당시 조선의 일반사회에 대하여 진행했던 활동으로 주택문제는 중요한 사업⁶⁾이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실물 주택을 최초로 전시하게 된 것은 당시 조선에서의 일본인들에 의한 주택개선 의지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

며 조선박람회를 계기로 당시의 주택경향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 연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1) 最近 朝鮮建築界(1928. 6), 『朝鮮と建築』, 제7집 제6호 p.55
開期漸迫한 博覽會, 조선일보, 1929. 8. 29, 1면 1929년 9월12일~10월30일까지 50일간 京城府 景福宮내 10만여 평에 만 7천여 평에 달하는 건물을 건축하여 전시장으로 사용함을 발표하고 있다.

2) 中村誠(1929.10), 住宅出品의 趣旨, 『朝鮮と建築』, 제8집 제10호, p.2. “(중략)시정 20주년 기념 조선박람회 개설에 있어서 본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량주택의 실물을 출품하고 어떻게 개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실제로 그 방침을 제시하고 (중략)” 에서 中村은 전시용의 주택이지만 출품주택이 실물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생활하기 위한 주택과 동등한 조건을 겸비한 실물로 해석한다. 출품주택 발표(주 12 참조)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3) 참고문헌 10 참조

4) 참고문헌 8 참조

5) 참고문헌 6 참조

6) 本會創立趣旨及經過, 朝鮮建築會趣意(1922. 6), 『朝鮮と建築』, 제1집 제1호, pp.2-3

中村誠(1922. 6), 朝鮮建築界의 二大急務, 『朝鮮と建築』 제1집 1호, pp.20-26

『朝鮮と建築』(1922. 7), 제1집 제2호, p.41 참고문헌 7 참조.

1922년 창립된 조선건축회는 조선 건축계 발전을 위한 목적을 회칙으로 하고, 건축 관련 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창립 취지문에서는 조선 건축계의 가장 시급한 사업을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문명 도시를 설계하는 것에 두고 있다. 조선건축회의 사명으로 주택개선, 생활문제, 도시계획을 들었고, 조선건축회 산하 조직으로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제 2부 위원회가 ‘주택문제 연구위원회’로 주택문제, 조선식 주택개선, 건축 위생을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건축회는 주택문제인 주택개선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좌담, 전람회, 현상설계 등을 1945년까지 진행한다. 1922년 개선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은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로 중류가정, 문화생활, 개선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모집하였다.

*정희원, 숭실대 건축학부 실내건축전공 조교수,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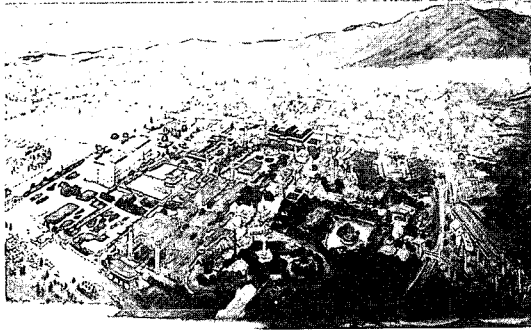


그림 1. 조선박람회회장 조감도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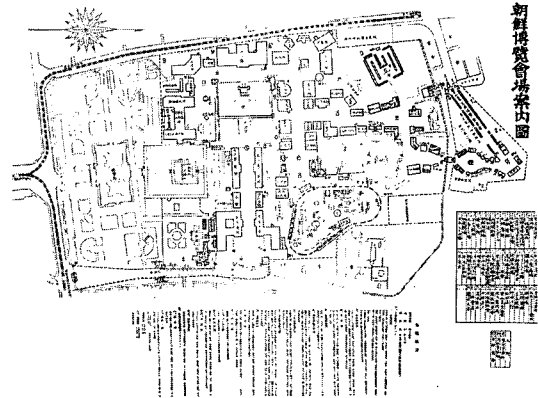


그림 2. 조선박람회회장 안내도

는 일본이라는 타자에 의해 개최된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박람회에 출품하게 되는 조선건축회의 구체적 관여와 개최경위 등을 조명하고, 출품주택의 특징과 성격 고찰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조선박람회의 관련 자료 중에서 조선박람회에 출품한 주택에 관한 기록 자료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건축전문협회인 조선건축회에 의해 발간된 『朝鮮と建築』⁸⁾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朝鮮と建築』에 게재된 출품주택의 도면과 사진, 회보(會報)기록을 중요 자료로 사용하였다. 1929년 조선박람회장에 건축된 출품주택의 사진은 외관과 내부부를 함께 수록하여 주택평면의 이해를 높여주고 있으며, 실제의 실내 생활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회보는 회의 일시와 내용, 장소, 시간 등의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조선건축회의 업무와 활동사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료라 할 수 있다.

II. 조선박람회 출품주택 개최경위

1.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위원회 발족 및 활동

조선건축회에서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된 것은 1929년 1월 25일의 이사회 겸 평의원 회의⁹⁾에서이다. 이날의 회의에서는 조선건축회가 무엇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담화를 진행하고, 같은 날의 친목만찬회에서 박람회 출품 건축시설위원회 설치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은 조선건축회 회장지명에 의해 10명이 선정되어 1월 31일 발표¹⁰⁾되었다. 조선건축회 회장, 부회장을 비롯하여 이사와 평의원에서 선정되고 있으며, 이들 선정위원들의 직업은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소속자 3명과 민간 건축사무소 및 기타업종에 소속하는 7명으로

표 1. 조선박람회 출품 건축시설위원 명단

| 성명 | 조선 건축회 | 직업·직위 | 직업분류 | | |
|-------|--------|---------------|-------|----------|---------|
| | | | 정부 공공 | 민간건축 사무소 | 기타민간 회사 |
| 岩井長三郎 | 회장 | 朝鮮總督部 內務局建築課長 | ○ | | |
| 中村 誠 | 부회장 | 朝鮮植産銀行技師 | ○ | | |
| 渡邊舜象 | 이사 | 合資會社水清組 京成支店長 | | ○ | |
| 多田順三郎 | 이사 | 多田組主 土木建築請負業 | | ○ | |
| 後藤虎雄 | 이사 | 後藤工業合資會社 社長 | | | ○ |
| 笹 慶一 | 이사 | 朝鮮總督部 內務局建築課 | ○ | | |
| 富野繁一 | 이사 | 京成窯業(株) 傳務取締役 | | | ○ |
| 五島榮藏 | 평위원 | 合資會社社長門組長 | | ○ | |
| 小寺等忠行 | 평위원 | 小寺組主 土木建築請負業 | | ○ | |
| 宮崎吉太郎 | 평위원 | 宮崎組主 | | ○ | |

구성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선정위원들은 모두 일본인들이며, 조선건축회가 당시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협회라는 점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영향을 대비해 보면 당연한 선정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출품 건축시설위원은 1929년 2월 5일 제1회 위원회¹¹⁾를 열고 박람회에 출품할 내용에 대하여 논의 하여 주택을 출품하기로 결정하고,笹慶一 위원의 제안¹²⁾으로 결정

7) 출처는 『朝鮮と建築』(1929. 9), 제8집 제9호, 권두 사진임. 그림2 조선박람회회장 안내도 동일한 출처임.

8) 『朝鮮と建築』, 1928년~1930년 제8집~9집 전 월호. 본 연구에서는 『朝鮮と建築』의 전권 중에서 조선박람회와 출품주택에 대해 게재된 것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

9) 會報(1929. 2), 『朝鮮と建築』, 제8집 제2호, pp.29-30.

10) 會報(1929. 3), 『朝鮮と建築』, 제8집 제3호, p.20

11) 會報, 앞글, p.20.

12) 會報, 앞글, pp.20-21.

笹慶一 위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중산계급을 위한 주택으로, 그 전에 주택건축 희망자를 물색하여 (중략) 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본건축회에서 설계하고, 유력한 하청업자 또는 재료업자에게 광고를 대신하여 재료 공급을 하게하며, 본 건축회 지도로 이상에 가까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박람회 개최기간 중 일반에게 관람시키며 종료 후에는 본 건축회가 책임을 지고 희망자의 지정장소에 주택을 이전한다. (중략)”

한다. 제2회 위원회(1929년 2월 26일)에서는 「박람회 출품주택 건축안」을 결정하고, 출품주택은 바닥면적 20평 이상~40평 이내의 중류계급을 위한 실물주택¹³⁾으로 발표한다. 또한 「박람회 출품주택 건축안」에는 출품주택의 설계를 의뢰하기 위해 후보자¹⁴⁾와, 출품주택의 재료공급을 위한 교섭 단체 회사¹⁵⁾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었고, 당시 조선에 주재하는 건축 관련 일본회사들을 공사 공급체로 선정하고 있었다.

1929년 3월 16일의 총회¹⁶⁾에서 岩井회장은 조선박람회에 조선건축회의 출품계획을 알리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 의하면 조선박람회로부터 약 200평의 전시장¹⁷⁾을 부여받아, 총 3호의 출품주택을 전시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총 3호로 제시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제2회 위원회의에서 거론된 바닥면적을 참고하면, 총 3호 주택의 경우 각 1호에 약 70평의 전시장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총 4호 주택일 경우에는 1호 주택당 전시장 면적이 약 50평으로 축소되며, 여기에 바닥면적 40평의 주택을 계획할 경우 협소한 전시부지가 되므로, 회장이 제시하는 총 3호의 출품주택은 전시장 규모에 적절한 제시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출품 건축시설위원회는 1929년 5월 9일자 회보(會報)¹⁸⁾에서 출품주택 설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총 3호의 주택평면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설계를 이끌어간다. 최종적인 설계안은 조선건축회 회장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밝히고 있지 않다. 단지, 「박람회 출품주택 건축안」에서 규정한 건축규모와 중류계급을 위한 주택에 부응하는 설계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결정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출품주택 설계위원회는 1929년 7월 7일 시공자를 多田組, 小寺組, 宮川組로 선정¹⁹⁾하고 각각 공사에 착수하도록 추진하였다. 多田組는 출품 건축시설위원회인 多田順三郎(이사)가, 小寺組는 小寺忠行(평위원)이, 宮川組는 宮川和一(평위원)가 운영하는 토목 건축회사이다. 多田와 小寺는 처음부터 출품 건축시설위원회로 선정된 위원이었으며, 宮川는 추가된 출품주택 설계위원회 위원이다.

출품주택의 시안 설정에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조선건축회 회원의 기획과 결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시공자는 결국 조선박람회 전시 이후 자신의 주택으로 이전하게 된다. 출품주택 이전 희망자로 지원하게 된 과정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출품주택 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 의사표명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건축회는 조선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출품주택 및 당시 조선소재 건축청부업자, 건축재료 회사, 건축 관련 사무소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일반 관람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조선 소재 신문기자를 초대²⁰⁾하여 출품주택을 관람하게 하는 등 주택전시의 관심과 그 중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다.

2.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의 취지

1929년 3월 16일 제6회 총회의 회장 발표와 中村誠 부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조선건축회의 주택 출품목적은 중산계급을 위한 주택개선과 그 해결책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개선된 주택보급을 해결하는데 있다²¹⁾. 또한 부회장의 설명 중 “조선의 현황은 모든 시설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약진하는 신흥 조선으로, 한층 더 앞서는 비약의 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통감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사회의 중견으로서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중산계급의 주택개선이야말로 절실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²²⁾는 중산 계급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계층이 아닌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그것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의 산업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식주 생활개선이 요구되고 이에 병행하는 시설이 필요한 시점²⁴⁾에서 주택개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조선박람회에 주택을 출품하는 것은 조선건축회로서는 의미있는 기획인 것이다. 출품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주택개선에 대한 제시가 가능하고, 개선된 주택과 시설이 정비된 구체적인 실물을 전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보다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주택개

13) 會報, 앞글, p.21.

14) 會報, 앞글, p.21.

출품주택의 계획실시를 위해 도안제작을 의뢰하며, 후보자는 安井鎮平이사, 井上三次郎 간사, 野中延喜 간사, 元田朝吉 간사, 江鳴鴻 간사, 木戸桂治 회원임을 밝히고 있다.

15) 會報, 앞글, p.21, 건축재료를 공급할 11개 단체임.

벽돌: 경성煉瓦共同販賣所, 좌판: 경성左官組合, 다다미: 경성畳組合, 건구: 경성建具組合, 난방: 某業者, 전기: 경성電氣株式會社, 목재: 경성木材商組合, 금속: 경성金物商組合, 유리: 경성硝子商組合, 지붕재료: 某業者, 가구: 某業者

16) 會報(1929. 4), 『朝鮮と建築』, 제8집 제4호, p.64.

17) 會報(1929. 4), 會務ノ報告, 『朝鮮と建築』, 제8집 제4호, p.71.

18) 會報(1929. 6), 『朝鮮と建築』, 제8집 제6호, p.25.

19) 會報(1929. 8), 『朝鮮と建築』, 제8집 제8호, p.21.

多田, 小寺, 宮川는 전시기간 종료 후 주택을 자신의 실제 생활주택으로 이전하는 희망자로 신청한다.

20) 會報(1929. 10), 『朝鮮と建築』, 제8집 제10호, p.36.

1929년 9월 24일 동아일보의 金東進기자, 조선일보 金乙漢기자, 경성일보의 白江犬馱기자 등 조선과 일본인 기자 27명이 초대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9월 24일자 석간과 25일자 양 신문기사에는 출품주택에 관한 기사내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1) 주 18 참조, p.74.

22) 中村誠(1929. 10), 住宅出品の趣旨, 『朝鮮と建築』, 제8집 제10호, p.3.

24) 서귀숙(참고문헌 7) 논문에서 주택개선을 위한 설계현상모집은 1922년으로, 조선박람회 이전부터 주택개선과 개량이 당시 조선에서 많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동아일보(참고문헌)등의 신문에서도 건축가 또는 저명인사들에 의한 주생활의 계몽 내용이 기재되고 있음은 의식주 개선의 문제가 일반사회에 있어 중요한 논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관련논문은 참고문헌 6, 10 참조.

표 2. 조선박람회 출품주택관련 조선건축회 활동²¹⁾

| 년/월/일 | 위원회 | 활동 내용 |
|------------|-------------------|---|
| 1929/ 1/25 | 이사회 및 평의원 | · 조선박람회에 대한 담화 · 박람회 출품 건축시설위원 설치결정과 위원선정의 회장일임 |
| 1929/ 1/31 | 이사회 | · 박람회 출품 건축시설위원 선정(10명) |
| 1929/ 2/ 5 | 제1회 박람회 출품건축시설위원회 | · 박람회장 내의 출품 예정 장소 설명 · 박람회 건축시설 출품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 모음 · 3인 위원 의견 중 旣위원의 안 결정 |
| 1929/ 2/26 | 제2회 박람회 출품건축시설위원회 | · 박람회 출품주택 실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안 결정 · 박람회 출품 부대사업에 관한 건 · 박람회 출품 증개에 관한 건 |
| 1929/ 3/13 | 제3회 박람회 출품건축시설위원회 | · 박람회 출품주택의 구체적인 안에 대한 협의, 출품 건축의퇴자는 희망주택에 대해 명기하여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결정 |
| 1929/ 3/16 | 제6회 총회 | · 조선박람회에 조선건축회의 출품계획을 알리고 계획내용 발표 |
| 1929/ 5/ 9 | 출품주택 설계위원회 | · 출품할 3호 주택의 평면에 관한 연구보고 |
| 1929/ 5/22 | 출품주택 설계위원회 | · 출품할 3호 주택의 평면에 관한 연구보고 |
| 1929/ 5/30 | 출품주택 설계위원회 | · 출품할 3호 주택의 연구 |
| 1929/ 6/11 | 이사회 합동회의 | · 박람회 출품주택설계에 관한 이사회와 출품주택 설계위원회 합동 협의 · 출품주택 설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설계안에 대해 협의 |
| 1929/ 7/ 7 | - | · 출품주택 시공자 선정(多田組, 小寺組, 宮川組)하여 공사착수 |
| 1929/ 9/ 4 | 이사회 및 출품주택 설계위원회 | · 출품주택 관리인 고용 및 사무소와 설명자 선정 건 |
| 1929/ 9/12 | - | (조선박람회 개최) |
| 1929/ 9/19 | 회계 이사회 | · 출품주택 설명서 및 조선소재 건축 관련업자 명부 인쇄비 건 · 京城소재 신문 통신 기자단 40명 출품주택 관람 초대건 |
| 1929/ 9/24 | - | · 회장 및 11명의 위원과 京城소재 기자단의 박람회 출품주택 관람 |
| 1929/10/30 | - | (조선박람회 종료) |
| 1929/11/21 | - | · 회장은 출품주택 시공자 및 그 외 관련자 초대 |
| 1930/ 3/20 | 제7회 총회 | ·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에 대한 결과 보고 |
| 1930/11/ 1 | - | · 출품 제1호 주택의 이전 (多田組의 多田順三郎 주택으로) |

선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효과는 일상생활을 향상시키고 광범위하게는 도시와 산업개발이 되어 당시 조선의 개척과 발전의 기초로 평가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출품주택은 ①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② 기능적으로 편리한 주택 ③ 사회문화에 적합하며 ④ 조선기후에 대처하기 위한²⁵⁾ 네 가지 개선사항으로 취지를 밝히고 있었다. 저렴한 가격이란 개선주택 보급을 일반적으로 원활하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편리하고 문화적 주택이라 함은 재래주택이 갖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이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일상생활의 편리를 얻게 함으로서 사회생활과 복지 향상을 이루게 되는 문화생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기후에 적합한 주택은 당시 조선에 건축되는 주택이므로 일본과는 달리, 기후라는 조선의 자연, 환경적 사항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한 주택으로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조선건축회에 의한 출품주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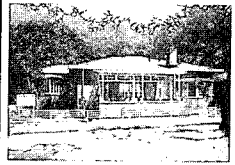


출품주택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출품주택의 건축공사 및 일반 건축구조와 평면을 고찰대상으로 한다. 평면에서는 실 구성, 실내 구성요소로 분리하며 각 출품주택의 도면과 설명서, 실물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 건축공사비 및 일반적 건축사항

<표 3>에서 총 3호의 주택공사비는 부지비용을 제외한 순수 건축공사비만을 산정한 것으로 평균 5,200원이 되며, 여기에 설명서에 기재된 별도의 전기, 난방, 가구 등의 부대비용²⁷⁾을 포함시키면 1호 주택은 6,739원, 2호 주택은 7,096원, 3호 주택은 5,199원으로 산정되었다. 결국 총 건축공사비는 평균 6,445원이 되어 현저하게 증가된 수준으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수 건축비만으로는 1평당 평균 150원으로, 당시 주거임대료 및 서민

21) 『朝鮮と建築』 8집1호~9집12호에 게재된 회보 내용 중,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에 관한하는 기록 회의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하였다.
25) 주 18 참조, p.74.

표 3. 출품주택의 건축구조, 재료, 설비²⁶⁾

| 출품주택 | 건축공사비 | 건축면적(평) | 건축구조 | 건축재료 | 보온설비 | 외관 |
|------|------------------------|---------------------------------------|---|---|--|---|
| 제1호 | · 총 5,695원 · 170원/평 | · 총 33.5평 | · 단층 · 벽돌 조적식 | · 외부벽: 벽돌 · 지붕: 그물형 아사노(淺野) 석면 기와 마감 | · 가와가미(川上)식 온돌 · 전열기(電熱器) |  |
| 제2호 | · 총 5,417원 · 145원/평 | · 총 37.36평 1층: 27.89평 2층: 9.47평 | · 2층 · 목구조 · 기초자갈(栗石) 지형 위 콘크리트 타설 · 하부 콘크리트 위 벽돌 조적 | · 외부벽: 아사히 석고 거친 표면(旭ギブス粗面) 마감 · 지붕: 시멘트기와 위 색 페인트 도장 마감 | · 중력 순환식 온수난방 · 온수관, 방열기 |  |
| 제3호 | · 총 4,532원 · 135원/평 | · 총 33.57평 1층: 24.82평 2층: 8.75평 | · 2층 · 일본식 목구조 | · 외부벽: 그물망 마감 위 리소이드(リソイド) 도장 마감 · 지붕: 일본형 광택 시멘트 기와 마감 | · 이와사키(岩崎)식 난방보일러 · 이와사키(岩崎)식 페치카 온수난방 · 방열기 · 전열기(電熱器) |  |

평균수입²⁸⁾을 기준으로 한다면, 출품주택의 건축비는 그다지 저렴한 가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출품주택의 건축공사비는 조선건축회가 밝힌 저렴한 주택가격을 위한 주택개선 출품 취지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출품주택의 건축면적은 33평~37평으로 중류계층을 위한 주택을 20평대의 소규모가 아닌, 평균 34.8평의 규모로 제시하고 있어 출품주택 건축안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재료에서는 외부 벽마감 재료로 벽돌, 리소이드²⁹⁾

도장, 석고 거친 표면마감³⁰⁾을 적용하였다. 지붕에는 석면기와, 시멘트기와, 페인트 도장을 사용하는 등, 이들 재료는 조선식 주택이나 일본식 주택에서 사용되지 않는 서구식의 새로운 건축재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당시 조선 내 일본인들의 주택을 벽돌 조적식의 서구식 주택으로 장려하고, 1923년 이후에는 수입 건축재료를 많이 사용한 조사연구³¹⁾와 일치하는 재료라고 말할 수 있다.

건축구조는 제1호 주택에서 벽돌 조적식(煉瓦造)을 사용하고 있어 당시 조선식의 목구조(木造)가 아닌 서구식 주택의 구조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외 제2호 주택은 콘크리트와 벽돌이라는 서구식 기초구조와 목구조의 혼합방법을 제시하고, 제3호 주택에서는 전형적인 일본식 목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보온설비는 방열기를 사용한 온수난방과 러시아식 페치카 난방법을 사용하거나, 전열기(電熱器)사용 및 조선주택의 재래식 온돌이 아닌 개량된 온돌방식(가와가미식 온돌)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기의 보온방법으로 페치카가 유행하고 온수난방이 사용되기 시작하며, 조선박람회

26) 출품주택 설명서에서 구조, 재료, 설비로 분류하여 연구자가 정리하였음.

27) 설명서에는 각 출품주택의 부대비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제1호 주택: 전등 총 666원 74전, 장식 및 가구 총 377원 40전, 제2호 주택: 전등 총 508원 54전, 난방 설비 총 820원, 장걸이 및 가구 총 350원 50전, 제3호 주택: 전등 총 466원 96전, 난방 설비 총 200원.

28) 심우갑 외(참고문헌 9참조)논문에 의하면, 1929년 아파트의 한 달 임대 및 숙박료가 4첩 반실의 경우 12~15원, 6첩실의 경우 17~20원, 2칸 연결실의 경우 23~24원임을 조사에서 밝히고, 중류생활자를 위한 것으로 논하고 있다. 손정목(1995,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p.120)은 1933년 대구 3개 지역 서민생활 실태조사에서 1가구당 평균수입이 8원 30전임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내무부 토목과에 종사하는 坂本嘉一(1929. 10, 出品住宅を見て, 『朝鮮と建築』, p.28)은 '출품은 모두 중류계층 주택뿐으로 좀더 低級한 주택 즉 중류와 프로와의 중간계급, 京城의 임대료로 말하자면 27, 28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는 모범적 주택을 고안해 출품해 주길 원했다. 주민수로 본다면 이정도 계급에 속하는 자가 더욱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희망이 있는 것이다.'에서 당시 경성의 주택 임대료가 27~28원임을 알 수 있으며, 지방(대구)의 서민수입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가격이다. 2개실의 도시 아파트 임대료보다 비싼 출품주택은 도시의 중류계층을 위한 단독주택이었으므로 지방과 서민주택과는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서귀숙(2004.8, 일제강점기 『朝鮮と建築』 권두그림에 개제된 조선인 개인주택에 대한 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p.77)논문에서는 불분명한 건축재료 도장명으로 설명하고, 이와 유사한 도장재료로 lithin 마감, scratching finish of stucco를 들고 있다.

30) 석고 거친 표면마감은 旭ギブス粗面로 표기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재료명이다. 아사히(旭)는 회사명으로 해석되고, 기부스(ギブス)는 석고의 외래어 표기로 해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석고 거친 표면 마감으로 명칭 하였다.

31) 笹慶一(1938. 2), 朝鮮における住宅の変遷, 『朝鮮と建築』, 제17집 제2호, pp.5-7.

"1922년 이전까지 조선 내 일본인들의 주택은 총독부에 의해 서구풍의 주택이 장려되었고, 당시 관사에는 벽돌 조적식에 대부분이 화장벽돌쌓기로 하였다. 지붕은 초기에는 일본형 기와를 사용하고 후에는 일본형 시멘트기와 또는 淺野슬레이트로 하였다. (중략) 1923년 이후 각종 지붕재료가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된다. ① 일본형 시멘트기와 ② 인조슬레이트"

에는 신식 스토브가 소개되는, 笹慶一의 조사연구³²⁾와도 일치하고 있다. 실내공기를 데우고 데워진 공기를 유지하는 난방과 보온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은 조선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방한 설비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량된 온돌은 출품주택의 모든 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 개의 실(온돌, 溫突로 표기)이라는 일부에만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겨울 기후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즉, 서구식의 난방법과 개량된 조선식의 온돌을 제시하여 주택의 보온설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선건축회의 의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식 건축구조인 제1호 주택은 온수난방이 아닌 개량온돌을 사용하였으며, 일본식 건축구조인 제3호 주택에서는 폐치카 온수난방이라는 서구식 설비를 제시하였다. 보온설비는 건축구조와 일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난방을 위한 새로운 설비방법만을 도입하고 그 적용을 주택개선으로 제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출품주택 평면구성

1) 제1호 출품주택 -多田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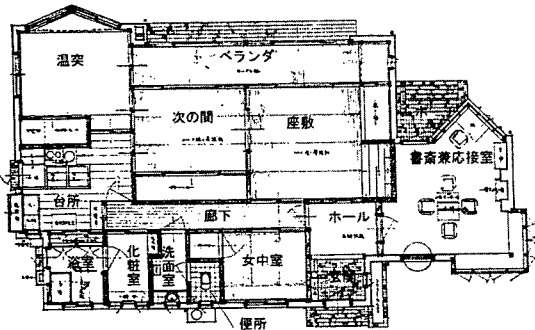


그림 3. 제1호 출품주택 평면

바닥면적 33.5평 벽돌 조적식의 단층구조를 갖는 평면이다. 평면형식은 전형적인 일본주택의 중복도 형식으로 자시키(座敷), 온돌, 쓰기노마(次の間)를 채광이 좋은 남쪽으로 계획하여 주택에 있어서의 이들 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반면에 가정부실(女中室), 욕실, 화장실, 변소, 세면실 등은 북쪽에 배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32) 笹慶一, 앞글, p.9

조선의 주택 보온법의 변천 제3기(大正12년 9월부터 昭和13년까지)에 해당하는 보온방법을 3단계로 분리하고 있다.

“초기(1923년 9월~1929년 10월)는 고정 설치식 폐치카가 점차 없어지고 놓아두는 폐치카가 대유행이 되었으며, 온돌실은 물론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스토브는 구식이 되었다. 단지 일부에서 온수난방이 점차 채용되기 시작한다. 중기(1929년 10월~1935년 10월)는 조선박람회 개최에서 신식 스토브가 소개되어 놓아두는 폐치카는 완전히 없어지고 고정 설치식 폐치카를 채용하기에 이른다. 또한, 신식 스토브의 유행에 의해 구식 스토브도 자연히 볼 수 없게 된다. 즉 고급주택은 온수난방을 채용하고, 대중적으로는 온돌실과 신식 스토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 같다”

평면배치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방향을 분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족을 위한 주요실과 위생관련실을 분리하는 평면구성이라 하겠다. 그러나 북쪽의 위생관련 실은 함께 배치되어 설비측면에서 경제적이지만, 중복도로 채광을 받지 못하므로 위생적인 면에서는 고려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는다.

자시키와 쓰기노마는 장지문에 의해 상호 연결되는 재래의 일본주거공간으로 계획되고, 서구식 주택공간인 서재 겸 응접실(書齋兼應接室)은 손님을 접대하는 기능으로 현관부근에 부가되는 배치이다. 이외에도 서구식 공간으로 베란다, 홀, 포치를 부가시키고 있다. 또한 조선식 공간인 온돌이 쓰기노마에 연결되는 구성으로부터 일본식 주택을 기본으로 서구식과 조선식의 공간이 첨가되는 절충된 평면양식이라 하겠다.

2) 제2호 출품주택 -宮川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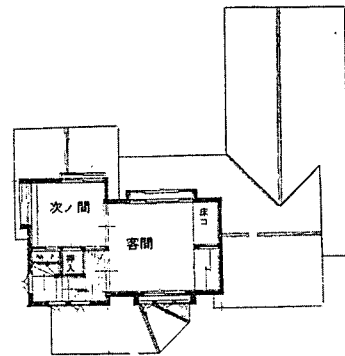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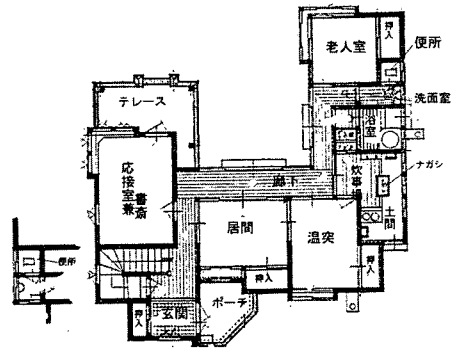


그림 4 제2호 출품주택 1층, 2층 평면

바닥면적은 37.36평 규모의 2층 구조를 갖는 평면이다. 출품주택 설명서에 의하면, 중산계급의 가족 4-5인을 기준³³⁾으로 하는 생활에 대응하는 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다. 평면형식은 제1호 주택과 유사한 복도형식으로 복도에 면하고 남쪽을 향하여 모든 실이 배치되어 채광 통풍에 우수한 배려를 하고 있다. 1층에 현관, 서재 겸 응접실, 거간(居間), 온돌, 부엌, 욕실, 변소, 화장실, 노인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객간(客間)과 쓰기노마의 일본식

33) 出品住宅第2號説明書(1929. 10), 『朝鮮と建築』, 제8집 제10호, p.11.

실을 계획한다. 1층의 각 실은 복도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배치로, 각 실의 독립화 또는 프라이버시 확보가 이루어지는 서구식 주거가 갖는 개실화로 개선된 면을 읽을 수 있다. 특히, 노인실은 독립하여 일조량이 좋은 남쪽에 배치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조건을 보건면에서 배려하려는 가족생활공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실 옆과 현관 입구 계단실 아래에 변소를 설치하여 가족용과 손님용으로 또는 노인실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생활의 편리를 제안하고 있다.

2층의 두개 실은 전형적인 일본주거에서 읽을 수 있는 손님을 위주로 접대하기 위한 실 배치이다. 1층과 2층의 실구성은 일본 주거공간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며, 서재 겸 응접실과 테라스, 포치의 부분적인 서구식 공간과 온돌의 조선식 공간을 도입하는 제1호 주택과 동일한 절충된 평면양식이다.

3) 제3호 출품주택 -小寺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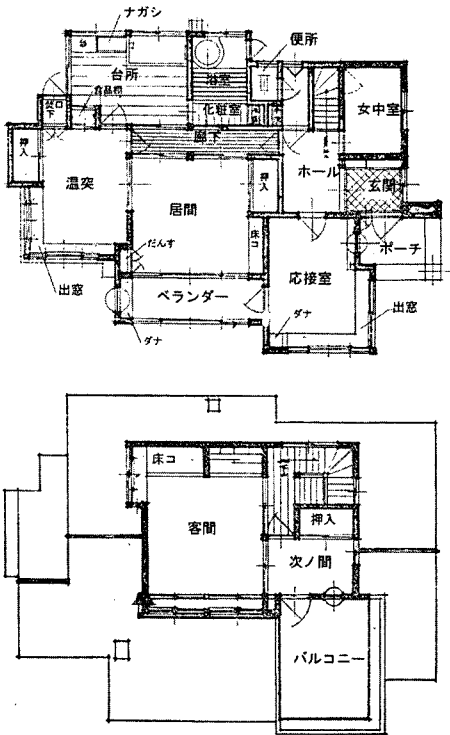


그림 5. 제3호 출품주택 1층, 2층 평면

제2호 주택과 동일한 2층 구조로, 바닥면적 33.57평의 일본식 목구조를 하는 평면이다. 평면배치는 1층에 현관, 서재 겸 응접실, 거간, 온돌, 부엌, 욕실, 변소, 가정부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방향으로 분리 배치되며, 2층에는 객간과 쓰기노마의 일본식 실을 계획하고 있다. 평면에서 제1호 주택과 차이점이 없는 유사한 중 복도형식이나, 구조면에서 2층으로 객간을 계획함이 다른 점이며, 이러한 2층은 제2호 주택과 동일함을 보이고 있다. 평면에서 외기에 면해 있는 1층의 포치, 베란다와 2층의 발코니는 서구식 공간 도입으로 볼 수 있으며, 특

히 1층 거간 앞의 유리창문이 설치된 베란다는 거간이 직접 외부와 연결됨을 차단하고 이중적인 창문과 함께 방한과 난방·해결을 위한 배치라고 볼 수 있다. 응접실과 조선식 실인 온돌에는 서구식 들출창(出窓)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들 또한 서구식 공간의 구성요소임을 읽을 수 있다.

총 3호 출품주택의 평면구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주택개선을 정리할 수 있다.

(1) 일본식 생활양식에 근본을 두는 일본식 주택 평면에 서구식과 조선식의 공간도입으로 세 가지 양식이 혼합되는 절충양식으로 주택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2) 평면구성에서 주요실을 채광이 좋은 남쪽에 배치하고, 욕실, 화장실, 변소, 부엌 등의 실은 북쪽으로 배치하여 남북방향으로 분리되는 실 구성의 주택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3) 평면구성에서 부엌과 욕실, 화장실(또는 세면실), 변소의 각각 독립적인 실 배치는 주택의 위생과 보건에 대한 개선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4) 온돌이라는 조선식 실을 계획함으로써 방한과 난방을 위한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출품주택의 실내 구성요소

1) 실내 마감재

<표 4>에 의하면 총3호 출품주택의 실내 마감재 사용은 각 평면구성에서 일본식과 서구식, 조선식의 세 가지 공간이 혼재되는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분류 된다.

첫 번째는 자시키, 거간, 객간, 쓰기노마의 전형적인 일본식 공간으로, 바닥은 다다미, 벽은 모래벽(砂壁), 천장은 사오부치가가미 천장(竿縁鏡天井)³⁵⁾이라는 일본형식과 그에 일치하는 일본식 재료의 사용이다.

두 번째는 서재 겸 응접실의 서구식 공간으로, 바닥은 화장판, 리노륨, 부분 카펫 깔기, 벽은 크라후 텍스(クラフテックス)³⁶⁾, 수입벽지마감으로, 천정은 스타코³⁷⁾, 합판 마감 등, 서구 재료의 사용이다.

세 번째는 온돌의 조선식 공간으로, 실내 마감재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앞에서 설명된 평면과 보온설비로부터 개량식 온돌구조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일치하는 조선식 온돌장판의 마감 사용으로 추정된다.

각 출품주택은 세 가지 공간을 평면에서 모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내 마감재도 세 가지 모두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분석된 실내 마감재료 사용을 통해서 주택개선의 제시를 찾아볼 수 있다.

35) board and batten ceiling으로 일본식 천장의 일종.

36) 크라후 텍스(クラフテックス)는 외래어로 명칭이 불분명하나, 텍스(tex)명사로부터 펄프를 압축하여 만든 섬유판의 건축내장재임을 알 수 있다.

37) 벽호세공(stucco), 소석회에 대리석분말, 점토 분말 등을 혼합한 마름벽 재료임.

표 4. 출품주택의 실내구성요소³⁴⁾

| 출품주택 | 실 구성 | 실내마감재 | 전기설비 | 위생설비 | 가구 및 장식 | |
|-----------|-----------|---|---|--------------|--|--|
| 제 1 호 | 단 층 | 현관(玄關) | 바닥: 타일 깔기 | 벽등, 점멸등 | | |
| | | 홀(ホール) | 바닥: 빛나무 합판 깔기 | 천장등, 점멸등 | | |
| | | 포치(ポーチ) | 바닥: 타일 깔기 | 천장등, 점멸등 | | |
| | | 베란다(ベランダ) | 바닥: 왕골 깔기 | | | |
| | | 복도(廊下) | 바닥: 나무 널판 깔기 | 천장등, 점멸등 | | |
| | | 서재 겸 응접실(書齋兼應接室) | 바닥: 화장판, 일부분 카펫 벽: 크라후텍스(クラフテックス)마감 | 천장등, 벽등, 점멸등 | | 요코야마 상점(横山商店)가구, 팔걸이 의자, 회전의자, 둥근 탁자, 모자걸이, 카펫, 가스난로장식, 커튼 |
| | | 8첩 자시키(8帖, 座敷) | 바닥: 콜크판 위 우스베리(薄縁)다다미 벽: 문화마나라(文化マニラ) 천정: 사오부치가가미 천장(竿縁鏡天井) | 천장등, 점멸등 | | 도고노마(床の間), 찌가이다나(違棚) |
| | | 6첩 쓰기노마(6帖, 次の間) | 바닥: 콜크판 위 우스베리다다미 벽: 문화마나라 천정: 사오부치가가미 천장 | 천장등, 점멸등 | | 반침(押入) |
| | | 온돌(溫突) | 바닥: 온돌 | 천장등, 점멸등 | 가와가미(川上)식 개량 온돌 | 반침 |
| | | 부엌(台所) | 바닥: 나무 널판 깔기 | 천장등, 벽등, 점멸등 | 개량 개수대 조리대, 배선대, 가열대 | 취사도구, 찬장 |
| | | 화장실(化粧室) | | 천장등, 벽등, 점멸등 | 일본식 개량 개수대(和式流), 세면대, 화장대 화장대 감판:비트 라이트(ビトロライト) | 선반 |
| | | 욕실(浴室) | 바닥: 타일 깔기 | 벽등, 점멸등 | 욕조:목제, 스노코(すのこ)합판 | 반침 |
| 변소(便所) | 바닥: 타일 깔기 | 벽등, 점멸등 | | | | |
| 가정부실(女中室) | 바닥: 다다미 | 천장등, 점멸등 | | 반침 | | |
| 제 2 호 | 1층 | 현관(玄關) | 바닥: 타일 깔기 | 천장등, 점멸등 | | |
| | | 포치(ポーチ) | 바닥: 타일 깔기 | 천장등 | | |
| | | 복도(廊下) | 바닥: 나무 널판 깔기 | 천장등, 2개 소점멸등 | | |
| | | 6첩 거간(6帖, 居間) | 바닥: 다다미 벽: 모래벽(砂壁) | 천장등, 점멸등 | 송유관, 환수관(還水管) | 방열기(放熱器), 반침 |
| | | 온돌(溫突) | 바닥: 온돌 | 천장등, 점멸등 | 송유관, 환수관 | 반침 |
| | | 서재 겸 응접실(書齋兼應接室) | 바닥: 리노롬 깔기 벽: 영국산 벽지마감 천정: 스타코 마감 | 천장등, 벽등, 점멸등 | 송유관, 환수관 | 방열기, 요코야마 상점가구, 커튼, 블라인드, 팔걸이의자, 소의자, 둥근 탁자, 장식장, 모자걸이 |
| | | 4.5첩 노인실(4.5帖 老人室) | 바닥: 다다미 | 천장등, 2개소점멸등 | | 반침 |
| | | 취사장(炊事場) | 바닥: 나무 널판 깔기 | 천장등, 점멸등 | 온수관, 개수대, 가열대 | 찬장, 선반 |
| | | 욕실(浴室) | 바닥: 타일 깔기 | 벽등, 점멸등 | 욕조:목제, 다관식 급탕기(多罐式湯沸器), 온수급탕관(水給湯栓) | 의복선반 |
| | | 변소(便所) | | 천정등, 점멸등 | | |
| | | 세면실(洗面室) | 바닥: 나무 널판 깔기 | | 세면기;세면 온수급탕관 | 세면기 |
| | | 테라스(テラス) | | 벽등, 점멸등 | | 파고라 |
| 2층 | 객간(客間) | 바닥: 다다미 벽: 모래벽 천정: 베이스기마사메 합판(米杉桎板) | 천장등, 점멸등 | 송유관, 환수관 | 방열기 도고노마, 찌가이다나 | |
| | 쓰기노마(次ノ間) | 바닥: 다다미 벽: 모래벽 | 천장등, 점멸등 | 송유관, 환수관 | 반침, 장식선반 | |

34) 출품주택의 설계 설명서와 게재사진, 도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재료, 전기, 설비, 가구 및 장식 등으로 재분류 하였다. 번역과 일본어를 괄호 내에 표기하였으며, 제차 표기 시에는 일본어를 생략하였다.

표 4. 출품주택의 실내구성요소 (계속)

| 출품주택 | 실 구성 | 실내마감재 | 전기설비 | 위생설비 | 가구 및 장식 |
|------|------------------|----------------------------|--------------|-------|---|
| 제3호 | 현관(玄關) | 바닥: 타일 깔기 | | | 신발장, 우산꽂이 |
| | 포치(ポーチ) | | 천장등 | | |
| | 홀(ホール) | | 천장등, 점멸등 | | |
| | 서재 겸 응접실(書齋兼應接室) | 바닥: 일부 카펫 깔기 천정: 라이온 합판 | 천장등, 벽등, 점멸등 | | 이와사키식(岩崎式) 페치카, 방열기, 장식장, 맞춤형 책선반, 소파, 의자, 탁자, 커튼, 카펫 |
| | 거간(居間) | | 천정등, 점멸등 | | 도고노마, 장식장 반침 |
| | 온돌(溫突) | 바닥: 온돌 | 천장등, 점멸등 | | 반침 |
| | 복도(廊下) | 바닥: 나무 널판 깔기 | | | |
| | 부엌(台所) | 바닥: 나무 널판 깔기 | 천장등, 점멸등 | 개수대 | 식품 수납장, 배선구 |
| | 욕실(浴室) | 바닥: 타일 깔기 벽: 하반부 타일마감 | 벽등, 점멸등 | 욕조;목제 | |
| | 화장실(化粧室) | 바닥: 나무 널판 깔기 | | | 탈의 선반 |
| | 변소(便所) | | 천장등, 점멸등 | 세면대 | |
| | 가정부실(女中室) | 바닥: 다다미 | 천장등, 점멸등 | | |
| | 베란다(ベランダ) | | 천장등, 점멸등 | | 선반 |
| 2층 | 8첩 객간(8帖, 客間) | 바닥: 다다미 벽: 모래벽 | 천장등, 점멸등 | | 이와사키식 페치카, 방열기 도고노마, 저가이다나 |
| | 3첩 쓰기노마(3帖, 次ノ間) | 바닥: 다다미 벽: 모래벽 | 천장등, 점멸등 | | 반침 |
| | 발코니(バルコニー) | | | | |

1호 주택의 경우, 일본실의 바닥 재료로 콜크판 위 우스베리(薄緣) 다다미의 사용을 보이고 있다. 실내 마감재 설명서에 의하면 “다다미는 비위생적, 비경제적 면이 많아 위생, 방한, 방서에 효과 있는 두꺼운 콜크판을 깔고 (중략) 사계절 청소가 쉽도록 한다”³⁸⁾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기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서구식 재료인 콜크판을 사용하여 방한과 방서에 대비하고, 다다미의 위생적 처리와 교체에 대한 경제적 문제점을 고려하는 등, 전형적인 일본의 바닥 재료인 다다미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실내 마감재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천장 재료인 사오부치가가미 천장은 반자들에 한 장의 합판을 사용하는 재래 일본식 천장을 개량한 것으로, 천장으로의 보온 유출을 막기 위한 개선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³⁹⁾ 또한, 벽 재료인 문화마나라(文化マニラ)⁴⁰⁾는 재래 일본식 모래벽이 갖는 문제점을 보강한 재료로서, 재료명칭에 문화라는 명사를 부가하여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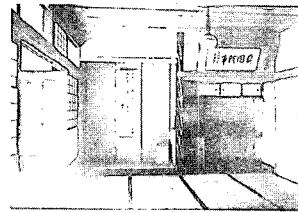


그림 6. 1호주택 자시키(座敷)



그림 7. 1호 주택 서재 겸 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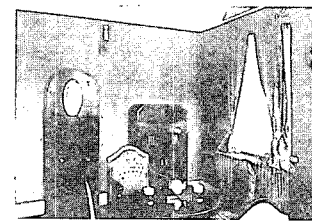


그림 8. 2호 주택 서재 겸 응접실

38) 出品住宅第1號說明書(1929. 10), 『朝鮮と建築』, 제8집 제10호, pp.8-9.

39) 出品住宅第1號說明書, 앞글, p.8.

40) 문화마나라(hempfiber, sissalfiber), 壁土에 혼합하는 여물로서 plaster도장의 반죽으로 사용한다. 년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92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건축마감재로 추정됨.

롭게 개선된 면을 강조하고, 개선은 문화생활의 일면임을 의미하는 재료 명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전기시설

전기 보급과 함께 주택에서의 전기생활은 바로 문화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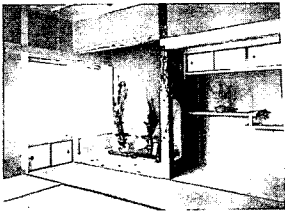


그림 9. 3호 주택 거간(客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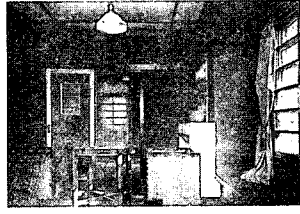


그림 10. 3호 주택 서재 겸 응접실

활⁴¹⁾임을 설명하고 있듯이 <표 4>에 의하면 출품주택은 모든 실에 실내전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천장등과 점멸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서구식인 서재 겸 응접실의 경우에는 벽등이 전등으로의 기능보다는 하나의 장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당시 전등의 필요성에 대한 이백규의 논평⁴²⁾에 의하면, 전등은 생활을 향상시키고 행복으로 이끌며 내일의 활동을 위한 휴식장소인 유풍한 가정으로 이끌기 위해 전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석유등 사용의 불편을 탈피하고 기능적으로 편리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공급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는 근대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기에 대표되는 설비를 주거건축에 설치하고, 결국 주거건축에 과학을 적용함으로써 생활개선을 추구하게 되어, 주택은 한층 진보된 근대화의 생활모습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는 근대적 문화생활의 표시이기도 하여 전기기구가 발달하고 이에 따른 전기사용이 높아진다. 전기기구⁴³⁾는 주택에서만 많은 도구로 보급되고 이들 도구는 당시 재래의 가스에 비하여 우수한 기능과 편리함을 갖게 하며, 이러한 전기의 보급과 전등을 비롯한 기구들의 도입은 주거생활의 합리화와 관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생설비 및 가구·장식

출품주택의 위생설비는 부엌, 욕실, 화장실, 변소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특히, 부엌은 재래의 설비보다는 주거생활에 기능적으로 편리함과 동시에 보건 및 위생에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즉, 개량 개수대, 가열대, 배선대 등의 음식 조리애 필요한 기구들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좌식 개수대를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입식 개량 개수대로 개량하고 가열대와 배선대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조리작업을 적은 동작으로 이루게 하는 작업의 효율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조리와 관련하여 부엌에 취

사도구, 찬장, 선반, 식품 수납장 등의 가구설치는 부엌 개량과 일치하고 기능과 편리함을 한층 높여주는 실내가 구이다. 부엌의 온수관 설비는 외부로부터 원활한 급수와 겨울의 온수공급에 편리함을 부가시키는 근대적 설비이다. 따라서 부엌개량은 주거개선 중에서도 주부의 가사생활과 관계되고, 가사 능률의 향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제시임과 동시에 식생활 개선과도 연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욕실과 세면실 또는 화장실과 변소는 평면구성에서 독립적인 분리 배치로 각각의 기능과 사용상의 편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실에도 급유관 설비를 구비하고, 특히 겨울의 결빙대처를 위해 제2호 주택에서는 난방용 온수설비의 겸비를 보인다. 욕실에는 욕조를 사용하고 세면실, 또는 화장실에는 세면대, 화장대 등의 설치와 의복선반, 수납장등의 서구식 가구를 사용함으로써 주거위생의 서구식 개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내장식 요소로는 일본식 실에 도고노마⁴⁴⁾, 찌가이다나⁴⁵⁾의 전형적 일본장식가구가 설치되며, 서재 겸 응접실에는 탁자(또는 등근), 의자(또는 팔걸이 의자), 책상, 책장 등의 입식생활에 맞는 가구들과 페치카, 카페트, 커튼 등의 서구식 실내장식 요소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본식과 서구식이 혼합된 평면구성과 일치하고 이에 따른 실내장식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조선건축회의 조선박람회 개최경위와 출품된 총 3호의 주택도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건축회에 의해 실시된 출품주택은 출품 주택위원회에서부터 공사 실시 및 전시 이후의 실제 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출품목적은 당시 조선에 있어서 가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인 주택개선이었으며, 하나의 개선형 모범주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선건축회는 박람회 출품주택 건축안을 작성하고, 조선건축회 회원을 중심으로 출품자와 시공자를 모집하였다. 출품자와 시공자는 모두 일본인으로, 결국 출품주택은 일본인에 의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건축회는 조선박람회 출품을 통해 주택개선과 그 양상을 실물로 전시관람, 체험하게 함으로서 그 계몽과 보급에 적극적인 활동을 표출하고자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넷째, 총3호 출품주택은 주택 평면에서 복도형 일본식

41) 朝鮮建築會, 出品家屋電氣設備に就いて(1929. 10), 『朝鮮と建築』, 제8집 제10호, p.16.

42) 李栢圭, 電燈과 照明에 對하여 一, 二 조선일보, 1930. 3. 1(1), 1930. 3. 2(2).

43) 朝鮮建築會, 出品家屋電氣設備に就いて, 앞글, p.17. 주택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구를 분류 열거하고 있다.

주방: 전기콘로, 온수기, 커피믹서, 빵굽기, 전기냉장고 등
 봉제: 전기미싱, 전기다리미 등

보건: 전기난방, 습도기, 청소기, 선풍기 등

세탁, 기타: 세탁기, 연초 점화기, 전기 축음기, 양수 보일러 등

44) 도고노마(床の間), 일본식 실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으로 벽에 족자를 걸고, 바닥에는 꽃이나 장식물을 꾸며놓는다. 일반적으로 객간(客間), 자시키(座敷)에 설치한다.

45) 찌가이다나(違い棚), 2개의 판자를 좌·우에서 아래 위로 어긋나게 매어단 선반으로 전형적인 일본실의 도고노마(床の間) 옆에 나란히 설치한다.

주택과 일본식 생활양식에 입각하는 평면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출품주택이 당시 조선인의 주거보다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⁴⁶⁾ 주택개선에 주안점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조선건축회가 주택개선을 위해 출품주택에서 제시한 것은, ① 조선기후에 대한 대응 방법 ② 평면구성에 서구식 주거 공간배치와 서구식 생활 도입 ③ 위생과 보전에 중점을 두는 주거생활 ④ 생활양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근대적 요소 적용에 의한 문화생활 추구이다.

당시 조선에서 최초로 열리는 박람회에 많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관람을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주거를 관찰하고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거개선에 대한 홍보효과는 상당히 높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건축회가 의도하였던 주택개선의 유도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단지 조선박람회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건축회가 모델로 전시하는 주거개선이란, 실질적으로 주택개선의 실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주거개혁이었으며, 전시를 통하여 생활 혁신을 의식적으로 계몽하는데 그 일차적 역할만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출품주택이 당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건축 전문가들에 의한 개선책의 제시였으며, 주택자체의 공간적 변화에서도 서구식 공간을 어느 한부분의 생활에만 첨가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거나, 개선책으로 적용하는 물리적 요소도 일부의 소극적 대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품주택의 효과적인 파급과 개선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은 주택개선을 단순히 근대문화가 발달한 서구식 모습으로만 전환시키는데 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22년 조선건축회 창립 이후 계속되어온 주택문제는 7년이 지난 조선박람회 출품주택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주택개선을 홍보하고 제시하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 박람회 출품주택의 개최경위로부터 조선건축회의 관련활동 내용들을 밝히고, 출품주택의 평면 분석으로 주택개선 방법과 그 제시들에 대한 고찰을 취

급하였다. 실질적으로 주택개선에 대한 관심과 추진은 조선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조선건축회가 출범하는 시점에서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박람회 이전의 주택개선 운동과 이후의 출품주택 영향, 당시 조선 총독부의 조선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과의 연계성이 요구되나 광범위한 시대역사와 실제적인 사례 부족, 심층적인 자료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게 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추적하는데 기초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조선일보, 29. 5. 16~5. 20, 8. 29, 9. 15~9. 19, 30. 2. 28~3. 3 석간, 4. 21~ 22 석간.
2. 동아일보, 21. 4. 3, 23. 1. 1, 26. 9. 11~9. 21, 27. 1. 5~1. 7, 31. 3. 13~3.2 6.
3. 조선건축회, 『朝鮮と建築』, 7집, 8집, 9집.
4.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5. 内田靑藏(1992), 日本の近代住宅, 鹿島出版會.
6. 박선희(1999), 춘원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 인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0권 4호, pp.53-62.
7. 서귀숙(2000), 1922년 조선건축회에 의한 개선주택 설계도안 현상모집에 관한 고찰,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권 3호, pp.29-40.
8. 성호(2001), 일제강점기 주택개량운동에 나타난 문화주택의 의미, 한국주거학회지, 12권 4호, pp.185-194.
9. 심우갑(2002), 일제강점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9호, pp.159-168.
10. 김명선·심우갑(2002), 1920년대 초 『開闢』誌에 등장하는 주택개량론의 성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8권 10호. pp.115-122.
11. 서귀숙(2004), 조선건축회 활동으로 보는 주택근대화,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권 1호, pp.63-74
12. 金珠也(1999), 日本強占期の建築團體朝鮮建築會の機關誌「朝鮮と建築」と住宅改良運動に關する研究, 京都工芸纖維大學博士論文.

(接受: 2005. 1. 31)

46) 内藤資忠(1929. 9), 朝鮮建築會出品住宅, 『朝鮮と建築』, 제8집 제9호, p.19

“(중략) 평면도 입면도도 모두 잘 되었다. 그러나 어떤 조선인으로 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과연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나 정도는 개량된 조선주택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중략)”